조선대병원, 지역 로봇수술 선도…1년만에 88례 달성

건강 바로 알기
로봇수술

김유석
조선대병원 로봇수술센터장

경구 통한 로봇 갑상선 절제술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 쾌거
4세대 다빈치 Xi로봇시스템 도입
출혈·합병증 적어 빠른 회복 도와

김유석 센터장

조선대병원이 로봇수술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2월 23일 조선대병원은 광주에서 최초로 4세대 다빈치 Xi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 최첨단의 안전한 수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4월 첫 수술인 위암 환자의 원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후로 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개소 1년 만에 88례를 달성하며 지역 로봇수술을 선도하고 있다.

◇로봇수술이란?

로봇수술이란 환자의 환부에 절개 없이 작은 구멍만 낸 뒤 집도의가 조정부스에서 원격으로 로봇팔을 조정해 삽입하고 수술하는 최소침습수술을 말한다.

이 수술은 정교하고 복잡한 고난이도 암 수술에 주로 사용된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적고, 흉터 및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들어 환자의 빠른 회복과 우수하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선대병원에서 도입한 첨단 로봇수술기인 4세대 다빈치 Xi는 10배까지 시야 확대가 가능한 고화질 3D 입체 영상, 손 떨림 방지를 위한 보정 기능, 정교한 손 움직임 구현 등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로봇으로 어떤 수술을 시행하고 있나?

조선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위암, 갑상선암, 담낭질환, 전립선, 신장, 부신, 요로계, 구인두암, 침샘종양 등을 대상질환으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경구를 통한 로봇 갑상선 절제술과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을 충청·호남 최초로 시행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구를 통한 로봇갑상선 절제술은 구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술 후 외부에 상처가 전혀 남지 않는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다. 젊은 연령층같이 사회활동이 많은 환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수술방법이다.

◇로봇수술센터

조선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고난이도 수술 경험이 많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각 진료과 교수들과 로봇수술 전담간호사, 로봇수술상담 코디네이터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로봇수술기의 도입 및 활성화로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난이도의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유석 조선대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 로봇수술센터가 개소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수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암 수술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서 "고난이도 초정밀 수술을 통해 조선대병원을 사랑해주신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김유석 로봇수술센터장이 경구를 통한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집도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이동훈 교수, 국제 학술지 '우수 저자' 선정

이하선 종양 특성 연구 등 성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비인후과 이동훈〈사진〉 교수가 국제 학술지 '완화 의학 연보'가 발표하는 '2023년 우수 저자(Outstanding Authors)'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완화 의학 연보(Annals of Palliative Medicine)'는 2012년에 창간된 국제 학술지다. 암과 신경학적 질환, 심장 질환 등 말기 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마다 선진적인 연구 결과와 우수한 논문 등을 발표한 연구자와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완화 의학 연보' 2021년 6월호에 '이하선의 방선균증(Actinomycosis of the parotid gland: case series)'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 논문은 이하선에 발생한 방선균증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 방법 및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호에 게재된 '동측 이하선에서 발생한 다발성 동기성 신생물' 교신저자로도 참여해 주목받았다.

논문에는 동측의 이하선에 다발성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이하선 종양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내용이 실렸다.

이동훈 교수는 "이번 선정을 통해 암 예후 예측 연구 분야에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암 연구 분야에서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최범채 시엘병원장 조선대 명예 경영학박사

최범채〈사진〉 시엘병원장이 지난 24일 조선대학교 2022년 졸업식에서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대 대학원은 학위기를 통해 "최 원장이 의료계 발전에 공헌했고,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몽골 의료시장을 선도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었다"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지역사회와 조선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15년간 난임 전문치료 병원인 시엘병원과 해외의 몽골, 러시아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3·1운동과 광주제중원'

광주기독병원, 3월 10일까지 병원 로비서 사진전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은 1919년 광주3·1만세운동에서 광주·전남지역 만세운동 확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제중원'과 당시 직원들을 조명하는 '3·1운동과 광주제중원' 사진전을 오는 3월 10일까지 병원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진전은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광주제중원 직원들의 3·1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해 전시했던 자료와 해마다 추가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해 패널 형태로 제작해 전시중이다.

광주기독병원의 전신인 광주제중원의 직원들은 1919년 광주3·1만세운동 과정에서 조선독립광주신문을 발간, 만세운동이 광주는 물론 목포, 영암 등 전남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촉매 역할을 했다. 특히 만세시위에 참여한 8명의 직원들은 옥고를 치렀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3·1운동 무렵 광주제중원 현황, 광주3·1만세운동 당시 배포된 독립선언서 및 유인물, 광주제중원 직원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소개 및 재판 판결문, 조선독립광주신문 등의 기존 전시자료를 그대로 소개한다.

여기에 Henry Chung(정한경)이 1921년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한 'The case of Korea'(일본의 한국 지배와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한 증거자료 모음집)에 수록된 자료 일부를 참조해 1910년대 국제정세와 독립운동 중심지가 표기된 우리나라 지도, 당시 광주시가도에 광주3·1만세운동의 경로별 시위 참여 그룹과 공공기관 위치 등을 표기한 자료, 조선독립광주신문의 역할, 3·1만세 시위 후 탄압사례 등을 추가 전시했다.

또한 광주기독병원은 27일 오후 '광주3·1만세운동과 광주정신'이라는 주제로 삼일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은 국가와 민2족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던 광주제중원 선배들과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밝은안과21병원-포스코노조, 의료지원 업무협약

밝은안과21병원(대표원장 김덕배)은 최근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과 의료지원을 위한 지정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 신재호 지부장, 이진윤 사무국장, 김태성 홍보섭외부장, 장영기 후생복지부장, 밝은안과21병원 이지안 기획홍보실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밝은안과21병원 제공〉